

전북문화관광재단, 생애주기 고려 프로그램 운영

문화 · 예술과 함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유아부터 노년에 걸친 생애주기 맞춤형 사업을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지역문화 실천에 나섰다.

재단에서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도민들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세대별 사업으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춘마이크,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에 24억여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먼저,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유아기(만3~5세) 때부터 예술 경험을 통해 풍부한 감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문화기반시설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내 3개 문화시설이 45개 내외의 영유아 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과 협력, 현재 연간 900여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간 공공에서 지원하던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학령기 아동에서 유아로 확대된 것은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전문가 컨설팅, 효과성 분석 등에서 중앙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은 도내 초등학생(3~6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성·감수성 향상을 위한 예술가 중심의 예술교육 운영 사업이다. 예술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 우수한 지역 예술가를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기량을 개발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문화 소외 지역과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 문화적으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전주는 물론 고창·정읍·진안·남원·군산 등 6개 시·군 9개 문화예술단체를 선정, 초등학생 200여 명이 9월부터 11월에 걸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 5일 수업이 시행된 2012년에 첫 시작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올해로 9년 차 사업이다 보니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유명하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춘마이크

문화예술을 통해 또래·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10개 시·군, 32개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시설이 참여하고, 660여 명이 연 26여 회 걸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청춘마이크’는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인(만 19~34세)이 학력·경력·수상 실적과 관계없이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해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가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123명(35팀)은 청춘마이크 무대와 공연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재단은 청춘마이크 운영 3년 차로 지난해 우수한 운영모델 구축, 청년 성장 지원체계 마련 등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호남권(전북·광주·전남) 주관처에서 전북권 주관처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전년 대비 3배수에 달하는 전북도내 35팀을 선발하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통해 다양한 실험적 공연무대를 선보이고 있으며, ‘청춘마이크 전북’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3만2,000여의 조회수를 기록, 70여 개의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고 있다.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은 청년·직장인·주민



지역특성화 예술교육



인생나눔교실

들이 생활권에서 예술 취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아리 활동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예술 감성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다는 점, 또한 취미동아리가 향후 주민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14개 시·군에서 59개 동아리를 발굴했으며, 14명의 코디네이터와 56명의 강사, 670여명의 인원이 참여해 12월까지 20회 이내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환경과 인문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 건강한 지역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13개 시·군의 30개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7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연간 26주에 걸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참여자 70% 가량이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군 단위 마을로 갈수록 고령 참여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호남권)’에서는 장·노년 세대와 아동·청소년 등 세대가 서로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인문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유아교육 지원·창의적 영재 교육 등 유아·초등생 대상 프로그램부터 지역특성화 교육 지원·인생나눔교실 등 중·장년·노년층 대상 프로그램까지

청춘마이크·동아리 교육지원 등 청년들 대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교육 세대별로 이용토록 할 것”

로 재단이 국비를 확보해 4년째 호남권 주관처로 운영 중이다.

만 50세 이상의 멘토 봉사단 42명이 전문 교육 이후 지역아동센터·중학교 등에 파견돼 800여 명 어린 멘티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장·노년층이 주축이 돼 지역사회·세대 간 문제 등을 솔루션하는 ‘삼산오오 인생나눔활동’에 장·노년 1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문화비전2030을 통해 문화예술의 방식이 사람 중심과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재단도 새로운 미션과 비전, 그리고 추진과제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문화와 예술교육을 도민에게 세대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 지역 장편영화 부산국제영화제 진출

‘태어나길 잘했어’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 통해 관객 맞이



군산교육문화회관, ‘On Air 군산
농업 청년사업가와의 만남’ 운영

2019년 전주영상위원회 장편영화 제작지원작 ‘태어나길 잘했어’가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진출했다.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총 192편의 작품이 상영되며, ‘태어나길 잘했어’는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영화의 오늘-비전’은 한 해 제작된 우수한 독립영화를 소개하며 한국영화의 경향과 비전을 살피는 섹션으로, 올해는 총 10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전주 출신의 최진영 감독이 연출하고 전북 지역에서 100% 촬영이 진행된 장편영화 가운데 최초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낸 ‘태어나길 잘했어’는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주인공 ‘준희’가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이야기를 기존 독립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미장센과 유머로 그려낸 유쾌한 판타지 영화다.

‘태어나길 잘했어’를 연출한 최진영 감독은 단편영화 ‘반차’ (2016), ‘뽕’ (2017), ‘연희동’ (2018) 등으로 그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작품



‘태어나길 잘했어’ 스틸컷.

에는 배우 강진아, 홍상표 등 평단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태어나길 잘했어’의 부산국제영화제 진출은 지역 영화 활성화에 정신호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태어나길 잘했어’는 전주영상위원회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19 장편영화제작 지원 사업 결과작으로, 두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촬영을 시작으로 올해 초 제작을 완료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영상위원회 사무국 기획홍보팀(063-286-0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온라인으로’

재단,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결정
‘슬기로운 방역생활’ 등 주제로
4~5세부터 고교생까지 참가 가능
내달 5~30일 홈페이지에 신청접수

제6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가 온라인 공모전으로 개최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윤성태)이 매년 은파호수공원에서 개최하던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를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공모전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제6회를 맞이하는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온라인 공모전)’는 ‘코로나19, 슬

기로운 방역생활’과 ‘행복한 우리가족’을 주제로 개최되며, 4~5세 유아부터 고등학교 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접수는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참가자는 저학년(유아부~초등학교 3학년)은 8월지, 고학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은 4월지 사이즈의 도화지를 각자 준비해 주회측이 준비한 두가지 주제중 선택해 그림을 그린 후 우편을 이용해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운영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유아, 초등고 구분, 각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선정)로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작품집, 부상 등이 제공된다. 대회주제 및 기타 자세한 요강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군산대야 초등학교 졸업한 가천집재단 이길영 회장이 지난 2014년에 후배들이 맘껏 책을 보고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국내 최대수준의 ‘가천이길여도서관’을 건립하여 기증한 이후, 2015년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군산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다. 이후 매년 학생들과 가족 등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가족축제로 자리잡았다.

/군산=한형봉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